

한국 생산자물가: 7 월 하락 되돌림일 뿐, 근원 상승률은 8%대로 여전히 높아

2026.09.18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8 월 생산자물가: 하락이 사라졌을 뿐, 상승이 새로 생긴 게 아니다

8 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해 7 월의 0.4% 하락에서 방향이 바뀌었다. 다만 이번 전환은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난달 물가를 눌렀던 요인들이 되돌아온 결과에 가깝다. 전환 폭 0.6%포인트를 뜯어보면 석유제품 가격의 되돌림, 금융 및 보험 부문의 낙폭 축소, 가스요금 인상 추정분, 계절적 농산물 가격 상승이 대부분을 설명하며, 이런 항목들을 걷어내면 근원 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사실상 0%에 그친다.

문제는 수준이다.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7.9%, 근원 기준으로는 8.2% 올라 여전히 높은 물가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근원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은 물가 압력이 식품과 에너지 같은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다. 항목별로 보면 공산품과 서비스 물가는 표면적으로는 포함(0%)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번 전환의 상당 부분을 이 두 부문이 만들어냈다. 공산품 내부에서는 석유제품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며 혼자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만든 반면, 화학제품·1차금속제품·전자표시장치 등 비에너지 품목은 여전히 가격이 내리고 있었다. 서비스 부문의 포함도 사실상 전액이 금융 및 보험업, 그중에서도 증시 거래대금에 연동되는 위탁매매수수료 항목의 낙폭 축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물가의 기조적 흐름과는 무관한 변동성 요인이다. 농림수산물 가격도 3.8% 뛰었지만 이는 시금치 등 일부 품목의 계절적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같은 품목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현재 기준금리 3.00%에서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 국면에서 볼 때, 이번 발표는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약화시키는 재료가 되지 못한다.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8%대에서 오히려 더 올라선 이상 긴축 종료를 뒷받침할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동시에, 당월 근원 물가의 전월대비 상승률이 0%에 그치고 이번 전환분이 일회성·계절성 요인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은 즉각적인 추가 인상을 압박하는 재료도 아니다. 즉 높은 물가 수준은 인상 여지를 계속 열어두되, 당월 흐름 자체는 즉시 행동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회의 때마다 상황을 점검해 가며 판단하는 현재의 정책 경로와 대체로 부합한다.

앞으로는 근원 물가의 전월대비 상승률이 0% 안팎에서 계속 머무는지, 아니면 두 달 연속 0.3% 이상으로 뛰어오르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후자라면 이번 전환을 일회성으로 본 판단을 재가속 국면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조정됐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며,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락분이 향후 국내 출하가격에 반영되는지도 원가 측면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18 (이번)	8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올라 7 월의 0.4%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물가 압력이 생겨난 결과라기보다 7 월 하락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간 것에 가깝고, 전년동월대비로는 총지수 7.9%, 근원(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8.2%라는 높은 물가 수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근원 지표가 총지수보다 높고 전월보다
2026-08-21	7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내려 6 월의 보합(0.0%)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6 년 들어 처음 나온 하락 전환으로, 직전 마이너스 기록은 2025 년 5 월(-0.4%)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여전히 7.7% 높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0%로 헤드라인보다도 높다. 이번 하락 전환의 내용
2026-07-22	월간 모멘텀(+0.0%)은 기저효과 역풍 신호로 약화했으나, 전년비 +8.6%는 기저(2025 년 고점) 위에 고착된 상태 — 마지막 '큰 기저효과 지원' 국면이자, 동시에 수입·원재료의 구조적 압력(국내공급물가 +13.2%)은 여전히 진행 중.
2026-06-19	MoM 급락(2.7%→0.8%)이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를 시사하나, YoY +8.5% 유지는 수입물가 고착과 기저효과의 복합으로, 중기 구조적 압력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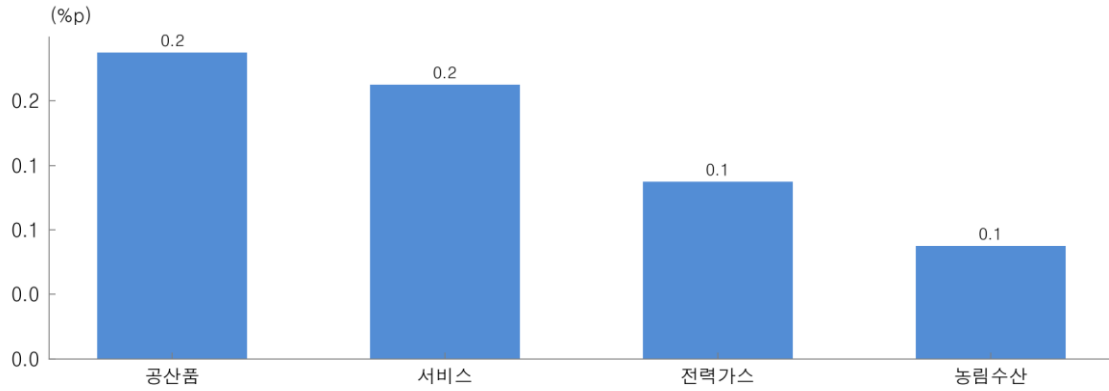
8 월 생산자물가: 항목별 등락과 성격

항목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맥락
총지수	+0.2%	+7.9%	7 월 -0.4%에서 전환, 일회성 요인 중심
식료품및에너지이외(근원)	0%(보합)	+8.2%	총지수보다 높아 물가압력 전방위 확산
농림수산물	+3.8%	+1.1%	시금치 등 계절 급등, 농산물 전년비는 -4.6%
공산품 - 석탄및석유제품	+0.4%	+54.3%	전월 -4.2%에서 반등, 공산품 상승 견인
서비스 - 금융및보험서비스	-1.5%	+21.5%	위탁매매수수료 전년비 83.0%, 거래대금 연동 변동성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0.9%	+2.9%	산업용도시가스 전월비 11.0%가 주도, 전력은 0%
국내공급물가지수	-1.3%	+8.6%	수입가격 급락(원재료 -6.4%)이 하락 주도
총산출물가지수	-1.2%	+15.2%	수출가격 -4.6%가 하락 주도, 국내출하는 +0.2%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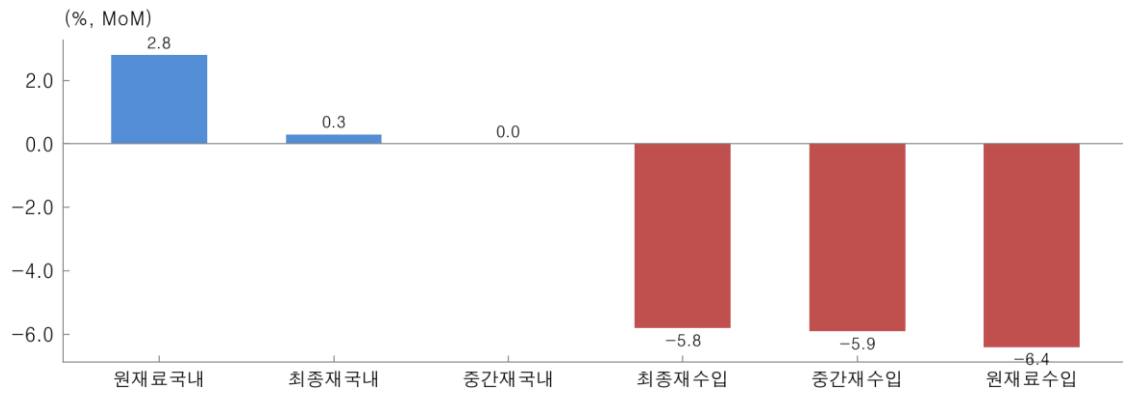
지표	값
PPI 전월대비(%)	-0.4
PPI 전년대비(%)	7.7

8 월 PPI 전월비 전환(-0.4%→0.2%) 항목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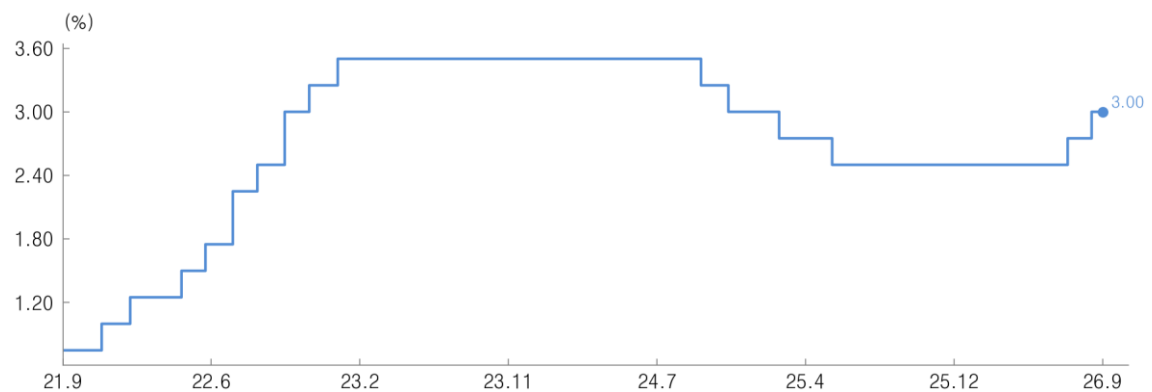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8 월 국내공급물가: 수입가격 vs 국내출하가격 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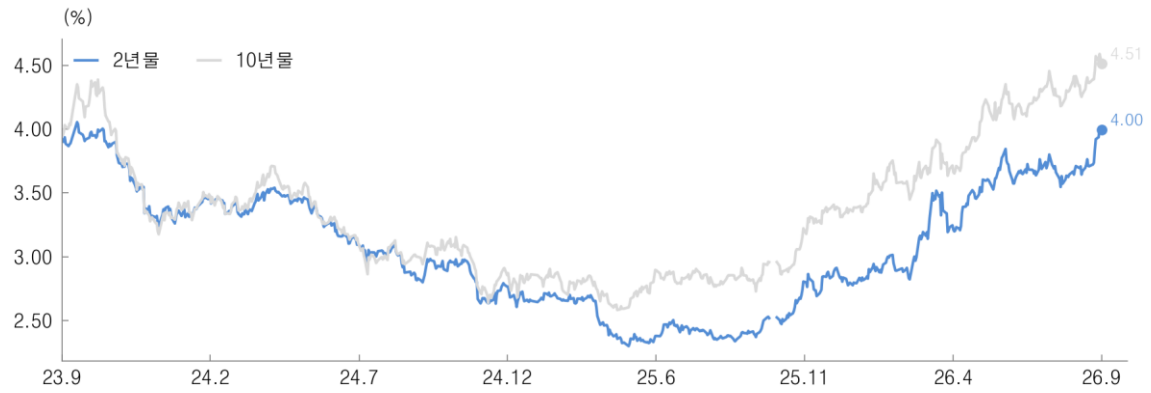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기준금리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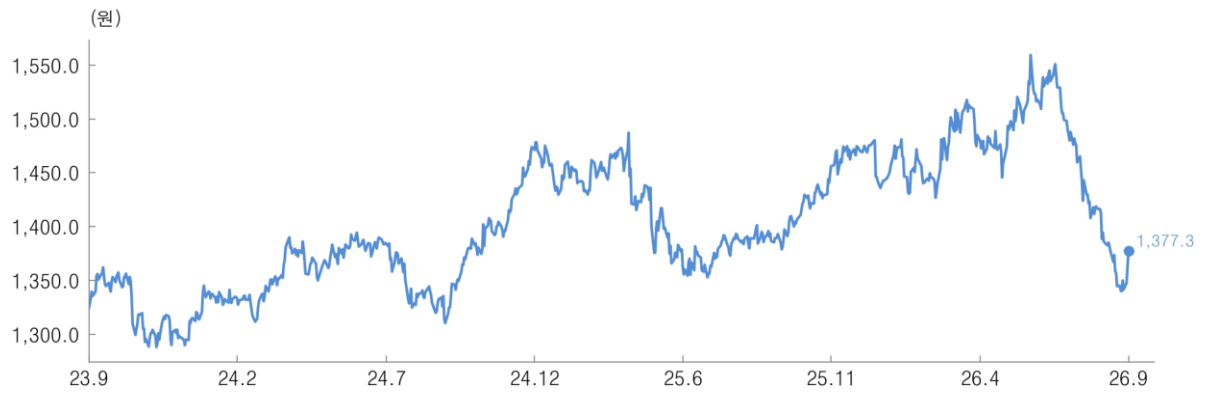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원/달러 환율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